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개장’

본격 여름 피서철 손님 맞이

물놀이 시설·카라반 등 새로운 체험공간 조성



영광군은 지난 13일 각급 기관사 회단체장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마미해수욕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 손님맞이에 나섰다.

가마미해수욕장은 영광 9경 중 하나에 속하는 영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1km의 드넓은 반달모양의 백사장과 낙조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호남 3대 해수욕장으로 뽑

힐 만큼 명성이 높은 곳이다.

최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카라반 등 새로운 체험공간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아영장 데크시설 26면을 완공하여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설 보완뿐만 아니라 8월 4일부터 5일까지 해변가요제를 개최하고 장어잡기 등 다양한 이벤

트도 준비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광군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에 두고, 해양경찰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체 안전관리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 없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119 수상구조대와 안전 관리요원들은 “영광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과 함께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김준성 군수는 축사를 통하여 “각종 편의시설 보완과 다양화 이벤트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이 있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친절 생활화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로 올해 방문한 피서객들이 내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37세대 지급

구례군은 2017년 하반기 동안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37세대에 총 218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는 과거 2년간의 월평균 에너지(전기,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연간 전기는 최대 4만 원, 상수도는 최대 6,000 원, 도시가스는 최대 2만4,000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 12월) 지급하며,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함평군, 마을리더 교육 실시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고민·마을발전계획 수립



리더와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9개 읍면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대학교 이종화 교수 등 9명의 전문가가 특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영암군 모정마을과 함평군 상모마을을 직접 방문해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살펴보고 각 마을에 접목할 수 있는 방

인을 모색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특산물, 경관, 생태환경, 전통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보성군, ‘제5회 벌교 갯벌 레저 빨배대회’ 개최



오는 28일 벌교 천상갯벌서

보성군에서는 오는 28일 벌교읍 정양리 어촌체험마을에서 ‘제5회 벌교 갯벌 레저 빨배대회’를 개최한다.

‘레저 빨배대회’는 벌교갯벌 레저 빨배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

고 보성군이 후원하며 보성의 대표적 특산물인 벌교 꼬막을 캐기 위한 이동 수단이었던 빨배를 지난 2010년 레포츠 장비로 개발하여 갯벌에서 빨배 레이싱을 즐기는 행사이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벌교 천상 갯벌을 주제로 공식행사, 갯벌 레포츠 경기, 부대경기, 체험 및 전시 행사 등 5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레저 빨배대회와 갯벌 달리기 대회가 행사에 참여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중·고, 대학·일반부, 단체전 등으로 구분하여 펼쳐질 예정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사업 역량강화로 명품 섬 조성

국내 선진지 견학 실시

신안군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 및 주민역량강화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가고 싶은 섬’ 안좌 반월·박지도와 증도 기점·소이도 마을 주민들과 추진위원회, 전남도,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마을주민 주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가시리권역, 웃뜨르 권역, 선흘마을 등을 방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에 선정된 ‘가시리 권역’에서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과 체험센터 및 운영프로그램 추진사례 등의 강의를 듣고, 랩카르슬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숲을 가진 ‘선흘마을’에서는 선흘마을 생태관광 운영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촌마을사업의 최우수 사례로 꽂히는 ‘웃뜨르 권역’에서는 지역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업, 홍보마케팅, 시설물 유지관리를 살펴보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접목해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많은 주민들은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도 주민의 역량으로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

다”고 말했다.

군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기존의 하향식 사업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가는 상향식 사업”이라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리더교육과 주민 참여를 높여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신안군은 2015년 안좌 반월·박지도, 2017년 증도 기점·소이도가 선정되어 5개년 계획으로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흥 도양읍 공원내 물놀이장 개장



어린이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고흥·도양 물이터 물놀이장’이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을 시작하는 물놀이장은 고흥읍 주공아파트 및 도양읍 녹동어린이집 인근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

한 어린이공원으로, 하루 2회씩 운영되며, 월요일과 기상특보시나 비가 오는 날에는 휴장한다.

또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물놀이 시설 관리인 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물놀이장 내 비단분수, 미끄럼틀 등 다채로운 물놀이 종합시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고흥읍 물놀이장은 2015년 개장 이후 일일 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해부터 운영된 도양읍 물놀이장도 또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어린이놀이시설 확대 및 개보수 추진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기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청탁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